

새만금공항 국비 5억...무안공항 또 먹구름

〈타당성 용역비〉

전북 이용객 20~30% 차지...서남권 거점공항 ‘흔들’

전문가들 “호남권 국제공항 2개 경제성 없고 공멸 불러”

‘24시간 공항’ 지위를 잃게 된 무안국제 공항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국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호남권 항공 수요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또 하나의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양 공항 모두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4·13면〉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국비 예산에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막판 정치논리에 따라 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최대 현안 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광역도 가운데 전북에만 국제공항이 없고, 2023년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무안공항과 가까운 거리인 전북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추진되면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안공항은 지난 2007년 서남권 거점공

항으로 개항했다. 무안공항은 공주 등 충남 일부 지역과 호남권 등지의 여객이 주고객이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새만금공항이 들어서면 무안공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겹치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익산~무안공항 간 소요시간은 40여분에 불과해졌다. 40분 거리에 또 하나의 국제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 차원의 공항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호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이 운영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당위성 주장도 비약됐다고 지적했다. 세계 잼버리 대회는 1회성 행사에 불과한데다, 2023년

대회 개최 전까지 국제공항 건설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예비타당성 조사→예산 반영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최소 7~8년은 소요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무안공항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를 여행하는 승객의 20~30%가 전북지역임을 감안할 때 무안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만금공항 사전타당성 예산이 국비에 포함된 것은 무안공항 활성화에 전력과 있는 전남 입장에서 탈감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항 건설은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들어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 중국 제치고 영국 원전 수주

아랍 원전 이후 8년만에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인수전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전의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수주가 최종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약 56조원) 수주 이후 8년만에 원전 수출의 맥을 잇게 된다.

6일 한전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NuGen사의 대주주인 일본 도시바 지분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인수전에서 중국이 선진국 시장 진출을 겨냥해 공세적으로 나온 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한전의 입지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한전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원전 수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 원전사업 참여를 위한 배타적 협상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라며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

면 내년 상반기 중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영국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를 소유한 원전 사업자인 NuGen사가 잉글랜드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약 3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원전 3기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50억파운드(약 21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 2013년 사업 참여 추진을 결정한 뒤 법률, 재정, 회계, 기술 분야 해외 유수 전문사와 함께 실사를 벌였고 사업리스크를 검토했다.

영국 수출 원전 후보는 한국형 신형 모델인 ‘APR 140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모델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으며 UAE에도 수출됐다.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은 사업자가 건설비를 조달하고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이 한전 수주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환익 한전사장, 아름다운 퇴장

임기 3개월 앞두고 퇴임

“英 원전 수주 가시화 다행

후배들에 길 열어줘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가량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한전은 조 사장이 오는 8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퇴임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조 사장은 “후임에게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으나 영국 원전 수주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며 “영국 원전 수주가 가시화돼 기쁜 마음으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2013년 전력수급 위기, 밀양 송전탑 건설, 전기요금 누진



제 등 숏한 위기를 극복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본사 나무이전, 4차 산업혁명 기를 마련 등의 소임을 마치고 대

직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전 사장에 취임한 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역대 최장수 한전 최고경영자(CEO)로 기록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 27일까지다. 행정고시 14회 출신인 조 사장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차관 등을 거쳤다. 공기업에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코트라(KOTRA) 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해남종합병원 3년간 재위탁

해남종합병원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3년간 재위탁해 운영한다.

전남도는 내년 1월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6일 운영평가 심사위원을 5명으로 구성해 해남종합병원에 대해 운영적합성, 사업추진의지, 타당성, 현지실사 등을 통해 재위탁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남종합병원은 내년 1월30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3년간 연장 운영하게 된다. 해남종합병원은 지난 2015년 9월1일 개원해 현재까지 가동률 86%, 이용 산모의 93% 이상이 만족을 표시하는 등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3월경 강진의료원에 2호점, 완도대성병원에 3호점을 완공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4호점은 대상지를 선정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

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지원 근거 헌법 반영을”

전남도, 국회·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지원 근거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전통문화 등 측면에서 유·무형 가치가 큰 공공재 역할을 한다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런 중요성에도 농업은 생산비 증가, 농산물 가격 폭락 반복,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명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 명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농업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등 국

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 삶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농업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농민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개정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농협 등은 지난달부터 농업기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을 펼쳐 한 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국가직 공채 일정

최대 95일 단축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일정이 7일 발표됐다. 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소요기간이 전년 대비 60일에서 최대 95일 단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불편과 부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대비 평균 두 달 이상 단축한 국가직 공채일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험일정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합격출제 가능 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장 확보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한마음 공인중개사

▶신가동 4층상가건물 대지 240㎡ 보5천만원 월420만원포함, 매대가 9억5천만원
▶송정동 3층상가건물 대지 280㎡ 최고요지 보1억4천만원, 월710만원 포함 매대가 20억원

▶남구 봉선동 1층상가 120㎡ 인테리어 잘되어 있음, 최고요지, 아파트정문앞 상가 밀집지역 **보5천만 월340만원, 권리금 일천만원(조정가)**
▶금곡동 총장사근처 고급 전원주택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1층 126㎡(주택정원 잔디밭, 발, 주차장소재) 사장상급매, 매대가 7억원(조정가)
▶화순 도곡온천내 무인텔 대지3000㎡ 건물4층 3동, 객실 37개, 월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가), 용지28억원포함, 매대가 37억원
▶담양 월산면 모텔(무인텔, 요양병원 최적화) 대지4200㎡, 계획관리지역, 건물2동있음(현재 담양군 모텔허가 안나옴) 철거후 무인텔허가 가능 매대가 10억원(조건부 협상가)

▶광산구 송치동 1800㎡, 1종일반주거지역, 매대가 3억원
▶제주시 과수원 1840㎡(도로있음), 1종일반주거지역, 매대가 4억4천만원
▶신안군 비금도 염전 (태양광), 25,000㎡ 계획관리지역, 매대가 4억5600만원
▶장성군 남면 행정리 440㎡, 1종일반주거지역, 매대가 9300만원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백양사와 월산면 사이)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계림오거리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감소!~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FDA
 식품안전관리인증
 식약번호 : 21719239

010-3598-7080